

2026 용인시 미술작품 임차전시 (1차) 공모사업 선정작품전

전시장소 관내 공공기관 및 문화복지시설
전시기간 2026. 3. 30. ~ 12. 31.



용인 문화의 흔적 서연수

20x10x27cm | 도자기

수많은 시간 속에서 쌓아지고 세워지며 상처 입은 역사와 생활의 흔적을 메웁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의 공존이 용인 지역의 이미지로 표현되어 희망적 상징과 함께 감성적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책 읽는 아이 박연진

72.7x60.6cm | Oil on canvas(서양화)

아이의 몰입된 표정과 곁을 지키는 반려견은 변화의 과정이 두려움이 아니라 따뜻한 동행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는 작은 깨달음, 조용한 집중, 곁의 온기... 그 미세한 순간들이 모여 삶을 바꾸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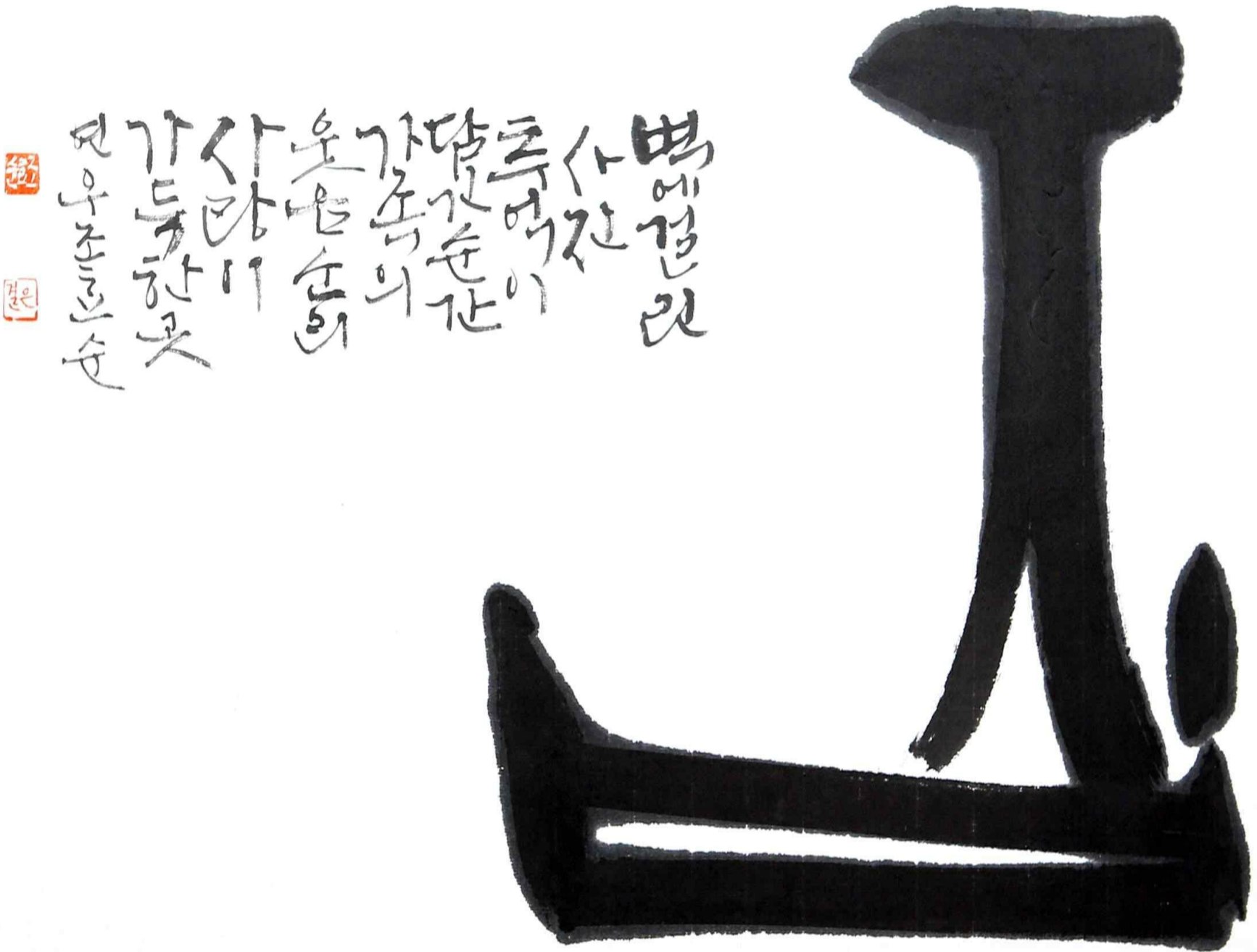


그리움 장대수

20x30inch | Digital print(사진)

명절 앞에 쌀 양동이 줄 세워 놓고 웃음 꽃을 피우던 방앗간! 세월의 변화속에 시간은 멈추고 퇴색 되어 기울어가는 옛 방앗간에 아련한 그리움은 빛이되어 애잔한 가슴 속 깊이 파고 든다.

- 동촌리 방앗간에서 -



집
조효순

70x50cm | 화선지에 먹(서예)

집은 하루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가장 먼저 빛이 밝혀지는 곳입니다. 작품속 “집”은 시간과 삶의 무게를 담아 기억을 밝게 비추고, 사랑으로 포근하게 감싸는 공간을 여백과 먹의 번짐으로 표현 하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기억 김현숙

20x30cm | Digital print(사진)

폐허의 공간에 스며든 빛과 붉은 천의 움직임은 시간의 흐름과 공간에 남은 기억을 드러낸다. 빛을 만난 공간은 다시 숨을 쉬고, 공중에 떠오른 천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흔적이 된다. 이 장면은 멈춘 시간 위에 스며드는 변화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희망을 이야기한다.



또다른 시선20 백승미

53x72.7cm | Mixed Media on Canvas(서양화)

작품 속 이미지는 어디선가 본듯하나 특정 장소의 마을은 아니다. 기억 속에 있는 어떠한 상황을 재현한 풍경이며 편안함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다. 관람객은 자연스럽게 추억을 소환하거나 살면서 느낀 상황을 대입해 상상하며 이야기를 꾸며간다.



창가 그리고 침 정혜민

60.6x72.7cm | Watercolor on paper(서양화)

창가에 비치는 따스한 햇살을 쬐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잠시 마음의 평온과 안락함을 느끼게 됩니다. 본 작품은 아스라이 비치는 창가 빛을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는 따듯한 변화와 여유로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을 담다 신희진

50x70cm | 순지, 분채(동양화)

차분한 흑백의 전통적인 소재와 다채로운 색감의 레고와 스마트 기기 소재들이 어우러진 책거리로, 옛것과 현재의 그 빛은 변화했지만, 작품 안에 내포되어있는 염원은 지금과 같다는 의미.



빛과 변화(햇살을 담은 창가) 조화숙

72.7x60.6cm | oil on canvas(서양화)

따뜻한 여름날 창가에 놓인 꽃들은 말없이 계절을 전하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의 창을 보는
이에게 선물합니다.



달빛 아래의 속삭임 김정애

60.6x60.6cm | Acrylic on paper(서양화)

큰 빛은 아니지만, 그작은 달빛 덕분에 나무의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듯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아도, 빛은 늘 있고, 변화는 조용히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림입니다.



여운 최호정

50x70cm | 순지, 분채, 붕채(동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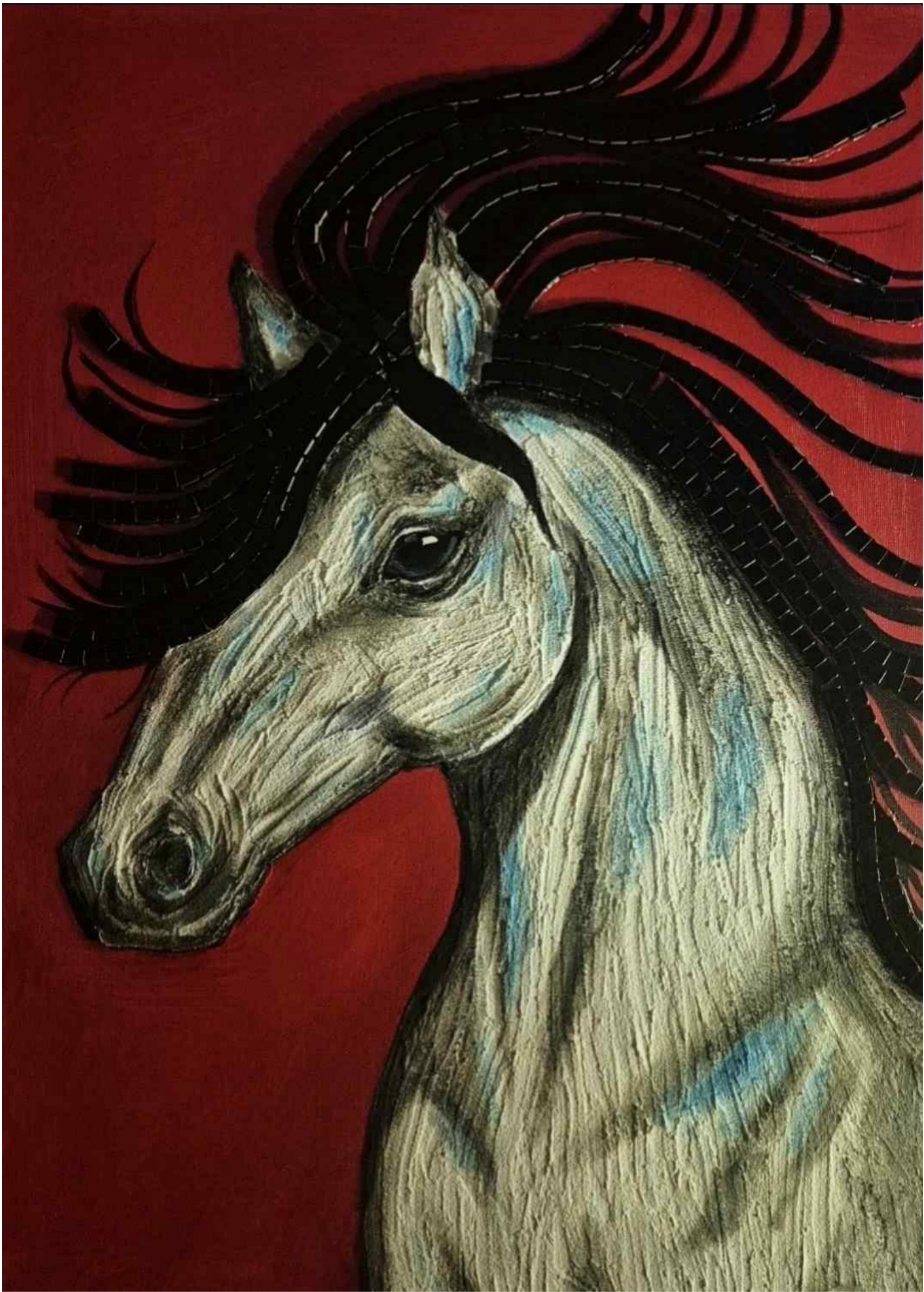
빛의 흐름에 따라 고전의미를 상징하는 기와와 향로에서 생동하는 자연으로 표현한 꽃과 곤충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표현한 그림이다.



Wake the Earth(대지를 깨우다) 양 방 환

50x75cm | Digital print(사진)

천지 창조의 원소인 빛(Sun)! 잠자고있는 대지를 찬란한 빛으로 깨워, 삼라만상의 생물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순간을 천지 창조의 순간이라고 느끼면서, 빛의 흐름으로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을 풍요롭게 조성해주는 현재 상황의 고마움을 카메라에 담은 찬란한 빛의 순간은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붉음속으로질주한다 김선정

72×60cm | Mixed Media on Canvas(서양화)

견고한 마티에르는 빛을 단순히 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울퉁불퉁하게 솟아 오른 면들은 빛을 붙잡아 그림자를 만들고, 그 미세한 명암의 차이는 말의 근육과 호흡을 더욱 입체적으로 살려낸다. 빛이 머무는 곳마다 생명의 리듬이 꿈틀거린다.

빛그림

빛그림 먹여 기러기신은혜
 어머니 크신은혜 땅과도
 같으시고 아버지 들은은혜
 하늘과 같으시네 기러기신
 은혜
 아버지 어머니 마음도
 향뜻이네 누누 없더라도
 밭다고 앉으시고 눈과 말
 쫓더라도 싫다고 앉으시고
 배 품어 친히 날은 키 큰 향
 자식이라 응중일 빛그림 다해
 아끼고 사랑하노

부모은중경 이현옥
 이현옥

부모은중경 이현옥

47x35cm | 색지에 먹(서예)

이 작품은 부모은중경의 일부로서, 부모의 은혜는 삶을 비추는 '빛'이며, 그 빛 속에서 인간은 '변화'하고 성장하기에 빛과 변화라는 이 주제로 작품화했다.



書存金石氣 室有蕙蘭香(서존금석기 실유혜란향)
김혜란

88x34cm | 화선지에 먹(서예)

書存金石氣 室有蕙蘭香(서존금석기 실유혜란향)
글씨는 금석의 기운이 있으며, 집안에는 혜란(난초)의 향이 가득하다.



미래를 관통하는 변화의혁신 김영수

20x30inch | Digital print(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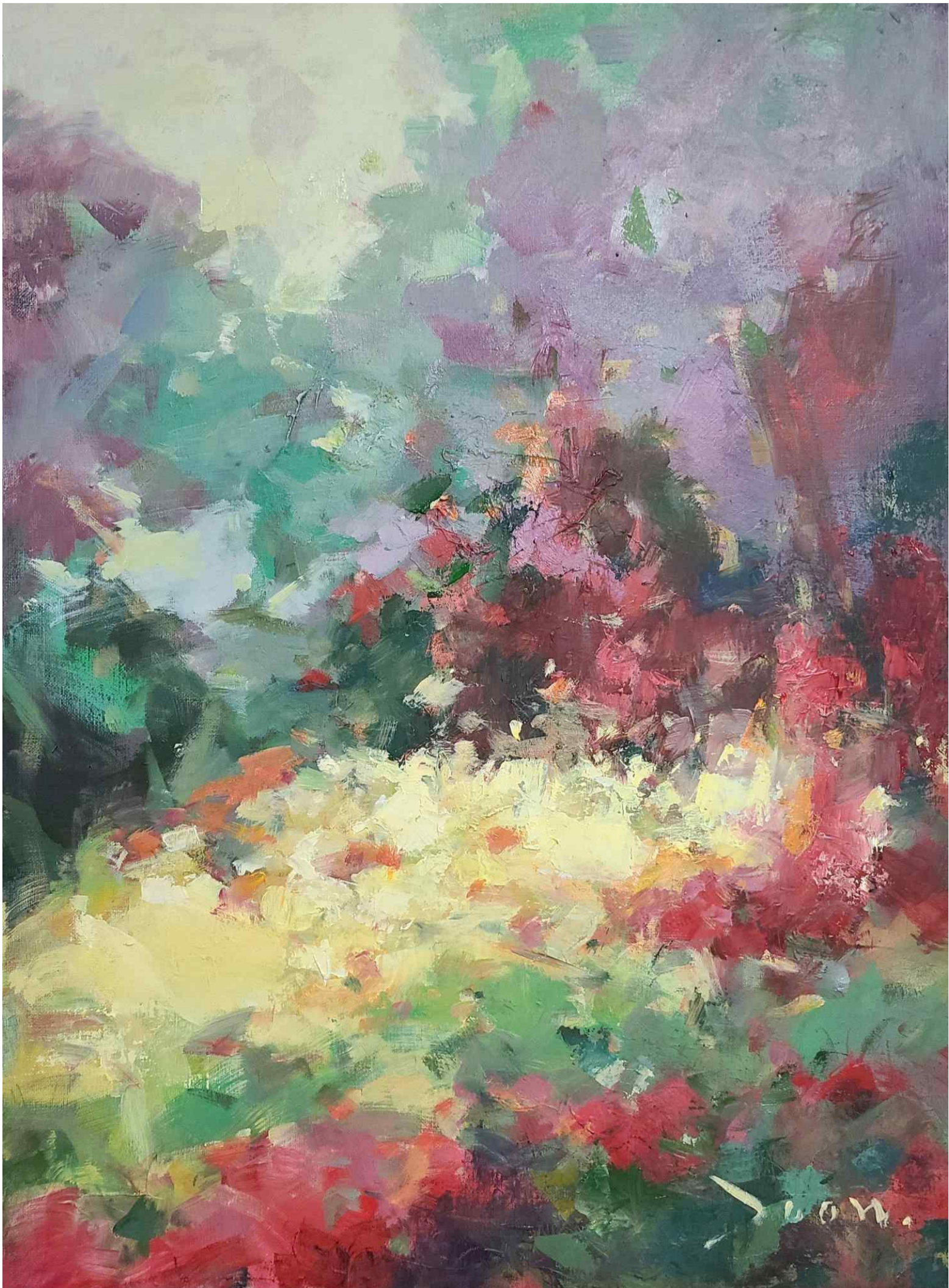
섬의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강렬한 오렌지빛은 정체된 어제를 넘어 새로운 내일로 나아가는 혁신의 의지를 상징한다. 수평선을 관통하며 뻗어 나가는 이 빛의 에너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변화의 혁신이자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변함없는 약속



햇살의 미소 이현경

36x50cm | Watercolor on paper(서양화)

순수하고 싱그러운 눈부신 햇살 아래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보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힐링을 선사합니다. 따스한 햇살의 미소를 꽃들을 통해 보면서 그 느낌을 담아 투명하고 맑은 수채화로 표현하였습니다.



6월의 향연I 김현순

72.7x53cm | Oil on canvas

6월의 꽃들과 나무숲이 빛과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축제 같은 분위기를 표현



산책 이 은 영(Kany)

53x40.9cm | Acrylic on paper(서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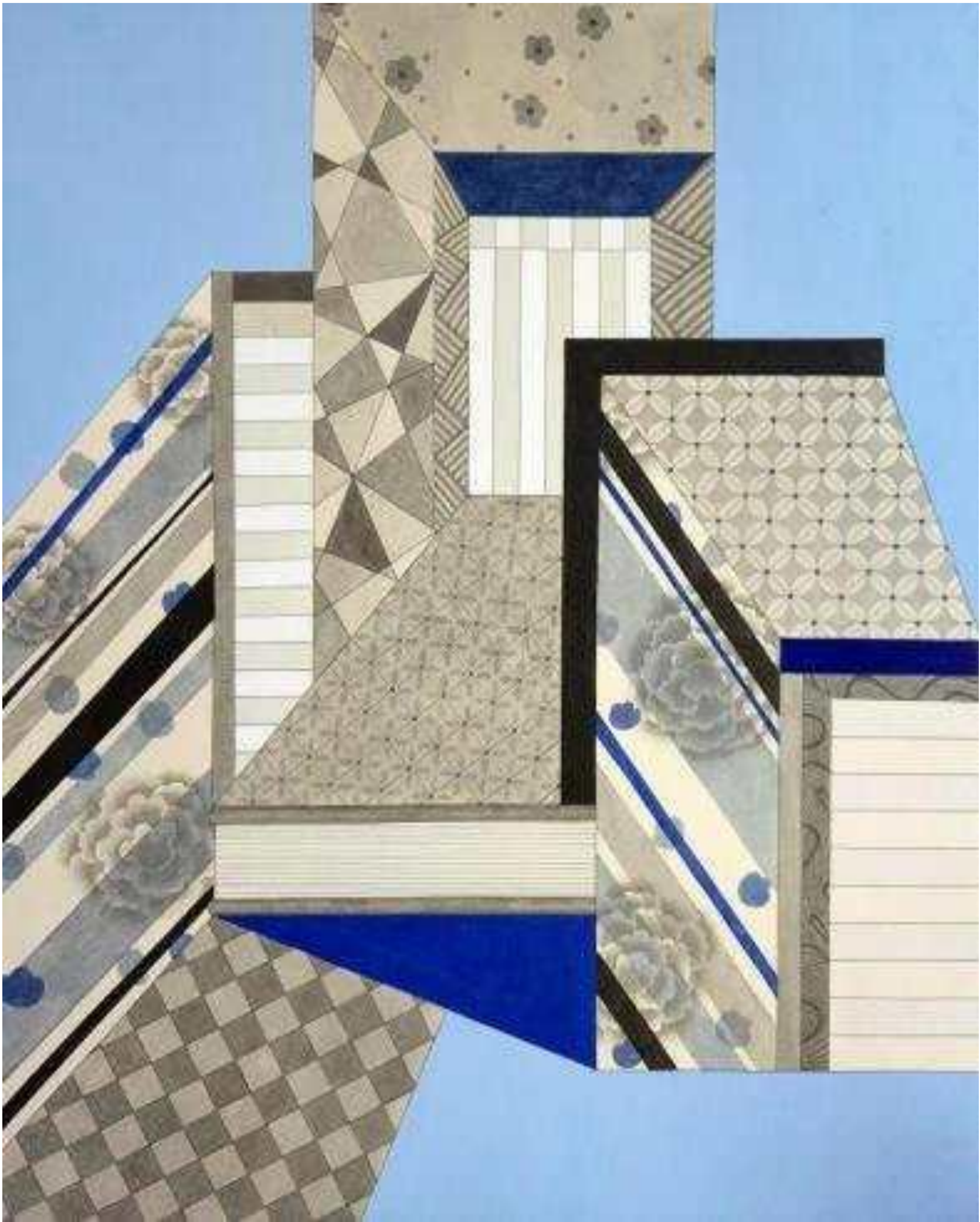
벚꽃이 흩날리던 따사로운 봄날, 산책을 나온 어머니와 나는 푸릇한 썩을 보자 어느새 나란히 주저앉아 썩을 뜯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그 모습이 떠올라 웃다가 문득 그리워집니다.



햇살 머문 석류 박운식

72.7x60.6cm | Oil on canvas(서양화)

따뜻한 햇살이 머문 모습을 보며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윈지 사랑이 넘치는 순간 같은 느낌이 들어 그대로 캔버스에 옮겨 보았다.



푸른 책가도 이 민 애

65.1x50.0cm | 장지에 분채, 먹(동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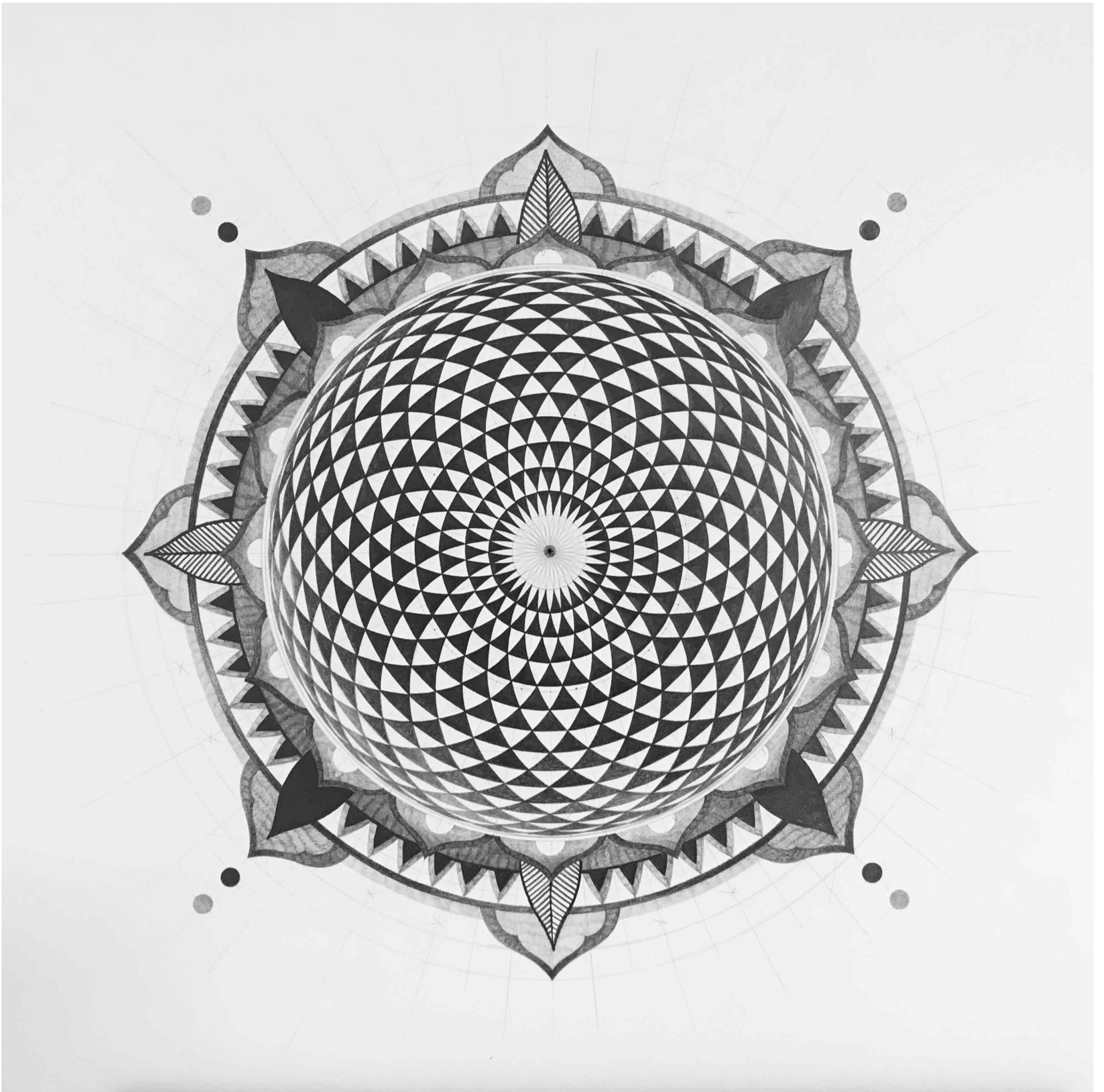
빛은 사물을 드러내는 수단을 넘어 인식의 방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여러 시점의 공존은 시간과 공간이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재구성됨을 암시한다. 이 작업은 빛을 통해 바라보는 방식이 새롭게 인식되는 순간을 탐구한다.



외할머니 장독대
지성실

72x53cm | oil on canvas(서양화)

항아리 위에 얹혀진 가을 햇빛



움직이는 기하학-하(Ha) 최혜정

65x65cm | pencil on paper(서양화)

하(ha)는 에너지의 체계인 프라나(prana)이자 태양을 의미한다. 압축, 증식, 회전의 리듬을 가진 원의 기하학을 만다라의 기원성과 조합하였다. 이는 상반 되지만 근원적인 만남으로 향한 여정이라 하겠다.



은총이 내리는 몽골의 밤 임승녀

72.7x53cm | watercolor on paper(서양화)

광활한 몽골의 밤하늘을 배경으로, 어둠 속에 스며드는 빛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순간을 담은 작품이다. 노랑과 분홍, 연둣빛이 서서히 퍼지며 어둠의 풍경을 바꾸듯, 작은 빛이 쌓여 새로운 시작을 이루는 과정을 상징한다.